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조선시대 별서정원의 차경 기법에 대한 재해석

- 담양 소쇄원을 중심으로 -

A Reinterpretation of Chakyung Techniques in Joseon Dynasty Byeolsoe Garden

- Focusing on Soswaewon in Damyang -

○김 민 정* 석 강 희**
Kim, Min-Jung Seok, KangHee

Abstract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capture the feeling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 It gives a deep and powerful feeling of connection. However, research has mostly looked at its beauty and philosoph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actual building methods and design techniqu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hagyeong technique. This technique is used in byeolsoe gardens. It cleverly uses Korea's unique natural features. We will try to understand the thinking and steps behind chagyeong. This research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raditional Korean design. It will also help us find new way to use it in modern architecture.

키워드 : 전통원림, 별서정원, 차경, 소쇄원

Keywords : Korean Traditional Garden, Byeolsoe Garden, chakyung, Soswaew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적 정서와 환경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전통 건축은 한국인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감동을 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까지 전통 건축의 공간적 감성과 미학적 감동이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정보를 전달하는 안내 자료나 현장 정보에도 건축 과정에 대한 시기적,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며, 어떤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이는 기존의 전통 건축 연구가 철학적이고 포괄적인 미학 또는 역사적 배경에 치중해 온 경향에 기인한다. 그 결과 해당 건축물이 어떤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기에 해당 건축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의 깊이 또한 어느 정도 한계를 마주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 건축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한국의 환경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축 형식 중 하나인 ‘별서정원’의 특징을 찾아내고, 건축 공간과 환경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도록 의도된 건축 설계 방법을 찾아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국의 전통 건축 중에서 주변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별서정원의 건축적 특징 중에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을 건축적 요소로 가져왔던 차경을 선택했다. 연구의 범위로는 별서정원 중 현재까지 원형에 대한 근거나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전통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소쇄원은 양산보가 16세기에 마을 뒤 계곡에 조성하였는데, 이처럼 조영자와 조영시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보수과정에서 초기도면의 역할을 해주던 「소쇄원도」를 근거로 복원이 진행되었기에 그 원형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설계(Reverse Engineering)²⁾를 통해 전통 건축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의도나 방법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건축의 배경과 사회성 등의 기본적인 틀을 문헌과 선행연구 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해당 건축물의 문헌이나 시를 근거로 한 기존의 전통 건축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장조사, 디지털 모델

²⁾ 역설계란 일반적인 공학 개념과는 반대되며 건설 산업에서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대상 물체의 현상을 CAD파일과 같은 도면을 만들어 추후 설계 변경, 대상 물체의 생산 연계에 도움이 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상설, 권순옥, 신중환, 2013, 역설계를 이용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 205-206)

* 경일대 대학원 석사과정

** 경일대 건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al, Kyungil University, 20249001@kiu.kr)

링을 활용해 환경적 맥락을 재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설계를 통해 재현된 주변 환경과 모델링을 바탕으로 그 당시 건축물의 부재 크기, 높이 등의 결정 과정을 통해 차경 기법이 어떤 의도와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건축물의 물리적 요소를 분석해 유추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원림과 별서정원

중국 원림 예술은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니며 자연 숭상을 주제로 독특한 유파를 형성해왔다.³⁾ 원림은 자연 산수를 주된 내용으로 삼고 화목(花木), 석재(石材), 건축물 등을 활용하여 유한한 공간에서 시각적 한계를 넘어선 공간을 창출한다. 이러한 원림은 자연의 소재를 그대로 가져오되 의도적으로 가공하고 재현하여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즉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이상적인 경지를 추구하는 특징을 지닌다.⁴⁾ 원림의 공간 구성 기법으로는 차경(借景), 숨김, 드러냄, 대비(對比), 허실상생(虛實相生)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다.⁵⁾

이에 반해 조선의 별서정원은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경승지나 전원지에 은둔(隱遁)이나 은일(隱逸)을 목적으로 조성된 제2의 주택 개념이다. 이는 주거 공간을 넘어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을 두루 체험하며 우주의 삼라만상을 느끼기 위한 별장형의 원유(園遊) 공간이다.⁶⁾

2.2 차경(借景)

차경이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다루어진 경우는 중국 명나라 인물 계성(計成)이 저술한 “『원야(園冶)』”로부터 비롯한다.⁷⁾ 차경은 경관을 단순히 ‘빌려오는’ 개념을 넘어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미학적 기법이다. 이는 유한한 공간에서 무한한 경치를 얻게 하는 기술로 시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물소리나 바람 소리와 같은 비시각적인 요소의 허경(虛景)을 포괄한다. 또한 계절의 변화와 같은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며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원인까지 내재되어 있다.⁸⁾ 이처럼 차경은 경관을 빌려오는 개념을 넘어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장해주며 이러한 기법을 시각적, 청각적, 인지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 소쇄원

소쇄원은 16세기 중반 조영자 양산보에 의해 조성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대봉대 주변의 초정을 중심으로 자연 계곡의

경관을 그대로 즐겼다. 1530년에서 1542년 사이에 광풍각과 제월당 등 대부분의 조영이 이루어졌고 이후 1563년에서 1570년 사이 고암정사와 부원당이 추가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1579년 정유재란으로 광풍각이 소실되었고, 구한말 이후에도 곳곳이 훼손되고 소실되었다. 1972년 지방문화재 지정 이후 1976년, 1977년의 보수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⁹⁾ 역사적 변천 과정 속에서도 소쇄원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영자 양산보가 남긴 자손 대대로 땅을 팔지 말라는 유언과 초기 도면의 역할을 해준 「소쇄원도」의 존재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쇄원과 주변 환경의 디지털 재현

소쇄원의 분석을 위한 선제적 작업으로 정밀한 모델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역설계 기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현재 제공된 실측 도면들에서는 건물들의 축과 계류의 형태가 다르거나 디테일한 현황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의 제공된 실측도면과 관련 연구 자료 및 현장 실측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도면의 틀을 수정하여 배치도와 디지털 모델링(그림 1)을 제작하였다.

현장조사 및 역설계를 통해 소쇄원과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재현함으로 기존 문헌이나 실측 도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물리적 요소와 주변 환경 간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1. 배치도(위), 디지털 모델링(아래)

3) 곡신, 2013, 중국 황가원림의 조영기법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경기도, pp.7.

4) 왕거, 2021, 중국전통원림디자인의 현대미주임 건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1.

5) 왕거, 2021, 중국전통원림디자인의 현대미주임 건축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18.

6) 이재근, 2005, 한국의 별서정원,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pp.139-144.

7) 김성우 안대회 역(1993), 원야, 도서출판 예경

8) 최기수, 2005. 차경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전통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pp.158-165.

9) 1983, 담양 소쇄원 보존 정비계획 및 설계, 문화재청 자료실

4. 소쇄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차경 기법

소쇄원의 차경은 단순히 정적인 경관을 빌려오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움직임을 적용하여 경관을 변화시키는 동적인 시퀀스(sequence)를 만들며 이는 시각적, 청각적, 인지적 차경이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4.1 시각적 차경

소쇄원 실측 평면도를 분석해 보면 제월당 2.4m, 광풍각 2.1m, 대봉대 2m로 서로 다른 기둥 간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2는 왼쪽 대봉대, 가운데 제월당, 오른쪽 광풍각의 평면을 보여준다. 도면상에 표기된 붉은 선은 각 건축물의 마루에 앉아 경관을 조망하는 관찰자의 위치를 나타내며, 각 경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선적으로 대봉대에 앉아보면 광풍각과 제월당의 전체 모습이 아닌 일부만 보이거나 나무에 가려져 건물 내부의 활동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월당에 앉아보면 광풍각의 일부와 나무에 가려진 대봉대의 풍경이 나타나며 소쇄원에서 비교적 높은 레벨에 위치해 있음에도 허경의 물소리가 들려오는 아래의 계곡으로 시선이 향한다. 마지막으로 광풍각의 우측 마루에 도달하면 대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이후 몸을 틀어 비교적 좁은 마루를 이동할 때 물이 흐르는 바위의 일부를 마주하게 되고 좌측 마루에 도달하게 되면 소쇄원 내부를 움직이며 들려오던 허경의 물소리를 마주하게 되고 좌측마루에서 보았던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허경으로 다가온다.



그림 2. 장면의 프레임화

도면이 제공되지 않은 대봉대를 제외한 건물들의 단면도를 살펴보면 처마의 높이와 깊이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왼쪽 광풍각의 좌측 마루와 제월당의 정면 마루에 앉아서 바라본 경관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사진을 살펴보면 제월당은 앞의 마당과 서로 다른 위치의 산봉우리가 함께 중첩되어 보여진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제월당에서는 크게 하늘로 시선이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광풍각을 살펴보면 무등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계곡과 뒤로 펼쳐지는 산과 하늘이 함께 중첩되어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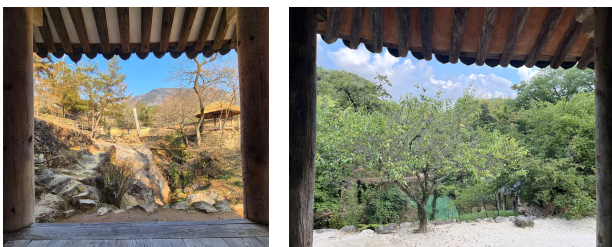


그림 3. 수직적 시야 프레임

그림 4는 소쇄원의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디지털 모델링으로 재현한 투시도이며 진입부를 기준으로 설정된 각 높이 수치를 표시한 자료이다. 소쇄원의 주변 환경과 디지털 모델링을 바탕으로 제작된 투시도의 기반부 높이를 살펴보면 같은 레벨에 위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높이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기반부의 높이 차이는 각 건물에서 보이는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우선적으로 소쇄원에서 비교적 높은 레벨에 위치한 제월당은 진입부, 대봉대, 광풍각, 산 등 전체적인 장면 즉 소쇄원의 전경(全景)이 내려다 보인다. 반면 비교적 가장 낮은 레벨에 위치해 있는 광풍각에서는 담장, 계곡, 바위, 대나무 숲 등 가까이 요소들이 보이는 근경(近景)의 경관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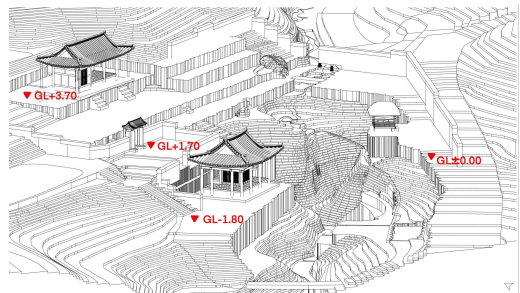


그림 4. 기반부 높이

4.2 청각적 차경

그림 5는 디지털 모델링으로 재현된 투시도에 물소리를 표시한 자료이며 이동 동선을 기준으로 표시하였으며 진입부, 제월당, 광풍각을 지나는 동선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소쇄원의 매표소를 지나 대나무 숲을 지나면 그곳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리며 소쇄원에 들어섰다는 기분을 준다. 이후 정적인 연지의 모습을 보면 입구로 다가가지만 들려오는 허경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난다. 이처럼 물소리를 따라 진입하게 되고 물이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 건물로 진입하게 된다. 소쇄원의 애양단 앞의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물을 등지고 제월당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당의 끝선과 건너편의 석축만 보이며 허경의 물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다. 이후 협문을 지나치고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따라 이동하고 광풍각의 좌측 마루에 도착하면 비로소 허경으로만 들려오던 물소리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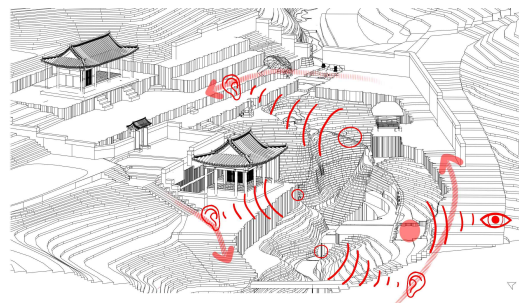


그림 5. 들리는 물소리와 보이는 물줄기

소쇄원의 광풍각 배치는 남측을 향해 정방향인 아닌 등고의 흐름에 맞춰 틀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광풍각의 좌측 마루에 앉아보면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새소리와 떨어지는 허경의 물소리가 중첩되어 들려온다. 광풍각의 정면 마루로 이동할 때 연지의 정적인 물과 떨어지는 허경의 물소리가 들리고 우측으로 틀면 물이 흐르는 바위의 일부와 다른 곳에서의 물소리가 들린다. 이후 좌측 마루에 도착하게 되면 소쇄원을 이동하며 들어온 물소리의 위치를 인식하고 동시에 우측마루에서 보았던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와 다른 곳에서의 물소리가 중첩되어 소쇄원의 입체적인 구조로 다가온다.

4.3 인지적 차경

소쇄원을 진입하고 이동하다 보면 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 소쇄원의 애양단을 지나게 되면 물과 등지게 되지만 물을 보면서 진입해 왔기에 그곳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제월당의 마루에 앉아있으면 계곡의 지형이 낮고 마당과 석축에 의해 가려져 있지만 그곳에서 물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제월당을 벗어나 협문으로 다가오면 나뭇잎이 흔들리며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소쇄원을 진입하며 보았던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광풍각의 좌측 마루에 앉아 있으면 무등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과 흘러내려오는 물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림 7은 광풍각 마루의 좌측과 우측에서 바라본 경관을 보여주는 현장 사진이다. 이처럼 한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인지할 수 있다.



그림 7. 들려오는 소리 인지

소쇄원을 이동하다 보면 물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소리가 들려오거나 물은 보이지만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림 8은 디지털 모델링을 단면으로 끊어 석축이 있는 곳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자료이다. 이처럼 기존의 지형을 모두 이용하지 않고 일부 석축을 쌓아 올려 건물을 배치하거나 동선의 영역을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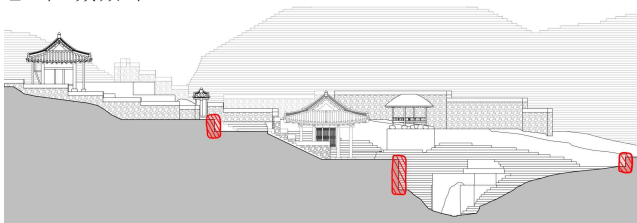


그림 8. 석축을 활용한 대지 계획

5. 결론

한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전통건축 형식의 하나인 별서정원의 특징 중 차경에 대하여 그 의도와 방법을 디지털 역설계를 통해 주변 환경을 재현해봄으로 다양한 해석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적 차경은 소쇄원에서의 기둥 간격, 건물의 높이, 기단부의 단차와 같은 요소들을 통해 시야를 세밀하게 조절하고 의도적인 경관으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2. 청각적 차경은 소쇄원은 물소리, 바람소리 등의 허경을 활용해 동선을 유도하거나 입체적인 공간 구조를 제공하는 등 청각을 하나의 건축적 장치로 활용했다.
3. 소쇄원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시선을 가리고 소리를 노출시키거나 이동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시각과 청각을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

본 연구에서 소쇄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차경 기법은 제한된 공간에서 확장된 공간감을 창출하고 정적인 경관을 넘어 움직임에 따른 시퀀스를 구성하는 등의 연출을 제공한다. 이는 다른 대상에서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국의 전통 건축에서 또 다른 의도나 기법들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이재근, 2005, 한국의 별서정원,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1, pp.139-144.
2. 최기수, 2005. 차경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전통조경.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3(1), pp.158-165.
3. 담양 소쇄원 보존 정비계획 및 설계, 문화재청자료실, 1983
4. 이상설, 권순옥, 신중환. 역설계를 이용한 건축자재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05-206, 2013-11
5. 김미정. 소쇄원을 통해 본 전통원림의 차경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6. 최유리, 천득엽. 자연관이 별서건축 공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297-302, 2008-11
7. 김봉렬. 한국건축의 재발견: 삶과 삶의 공간. 이상건축, 1999
8. 천득엽. 한국의 명원 소쇄원, 교보문고. 1999